



# Eighth Army Public Affairs Office

Phone DSN (315) 755-8275 / Local 0503-355-8275



## FOR IMMEDIATE RELEASE

Media Release: 20250516-01

MAY 16, 2025

### 미 8 군, 평택 안성천에서 한국 청소년 구조한 장병 배우자의 영웅적 행동 치하

**캠프 험프리스, 대한민국** — 미 8 군은 최근 한국 청소년을 익사 위기에서 구한 자니스 카르타헤나(Janice Cartagena) 씨의 용감한 행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치하했다. 카르타헤나 씨는 제 121 야전병원(65 의무여단) 소속 노르베르토 베리오스(Staff Sgt. Norberto Berrios) 하사의 배우자다.



평택시청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자니스 카르타헤나가 2025년 5월 15일, 다리에서 추락한 16세 소녀를 구조한 공로로 남편과 함께 평택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고 있다. 이번 시상식은 카르타헤나씨의 용기와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미 육군 사진제공: 제이슨 팔라시오스 병장)

사건은 지난 4월 15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인근 안성천에서 발생했다. 자녀들과 함께 놀이터로 향하던 중 다리에서 들려온 비명을 들은 카르타헤나 씨는 강물에서 허우적거리는 10대 한국 소녀를 발견하고, 지체 없이 소지품을 내려두고

## 미 8 군, 평택 안성천에서 한국 청소년 구조한 장병 배우자의 영웅적 행동 치하

주변 행인과 협조한 뒤 차가운 강물에 뛰어들어 구조에 나섰다. 이후 긴급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해 두 사람을 무사히 구조했다.

카르타헤나 씨의 용기 있는 행동을 기리기 위해, 평택시 긴급구조대는 5 월 15 일 평택시청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그녀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또한 그녀의 남편이 소속된 제 121 야전병원은 카르타헤나 씨의 이타적인 행동에 대해 민간 표창 수여를 추진 중이다.

카르타헤나 씨는 "이런 상황에 대비된 훈련을 받은 적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어둠 속의 빛으로 보내셨다고 믿는다"며, "평택의 미군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빛이 되기를 바란다. 때로는 훈련보다 중요한 것이 기꺼이 행동하려는 마음과 믿음"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례는 미군 가족의 강인함과 공동체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그 영향력은 미군 기지를 넘어 지역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문의:

미 8 군 공보실

이메일: [usarmy.humphreys.8-army.mbx.public-affairs-office@army.mil](mailto:usarmy.humphreys.8-army.mbx.public-affairs-office@army.mil)

-끝-